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뜻대로 순종해주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8월 2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68호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인 설정 스님이 10월 12일 당선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종단화합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노덕현 기자

"원융무애 화합으로 새 한국불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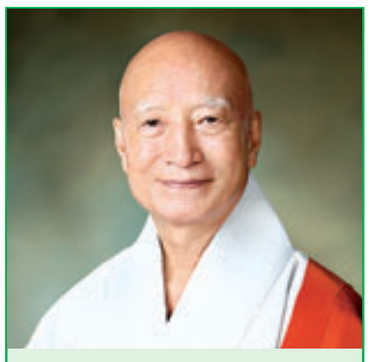
설정 스님,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선거서 기호1번 前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 당선됐다. 스님은 319명의 선거인단 투표서 총 234표를 획득해 82표를 얻은 기호2번 수불 스님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쳤다. 무효표는 3표.

설정 스님은 10월 12일 오후 3시 개표가 이뤄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중앙선관위의 당선공고에 따라 당선증을 전달받고, 조계사 대웅전서 부처님전에 고불을 올렸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통해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종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설정 스님은 지난 8년간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자승 스님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 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9표 중 234표 얻어 압승
"종단 발전, 쉼 없이 진력"
당선 직후 의혹 소명 약속
18일 원로회의서 인준 예정
인준 시 31일부터 임기 시작



설정 스님 경력 및 이력

1941 충남 예산 출생
1955 사미계(수덕사 혜원 스님)
1961 구족계(범어사 동산 스님)
제방 선원서 수선안거
2011 대종사 법계 품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종단개혁회의 법제분과위원장
제8 · 10대 중앙종회의원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제4대 덕숭총림 방장
조계종 원로의원

아울러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한다"고 덧붙였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 설정 스님은 "어떤 방법이든 깔끔하게 소명하겠다. 그게 종단에 도움되는 일"이라며 "문제들을 종도들과 함께 논의해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적폐청산 요구 등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가치로는 '정화정신'을 꼽았다. 설정 스님은 "청정승가와 수행정진을 위한 정화정신을 되살리겠다. 이는 스님이 스님다운 것, 여법한 것을 의미한다"며 "스님들이 진실하고 청정하다면 사부대중이 신의하고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종단 문제를 하나하나 종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선인 기자회견에 이어 설정 스님은 4층 접견실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서 자승 스님은 "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되신 걸 축하드린다.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8년간 종단을 잘 이끌어주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신 데 대해 종도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35대 총무원장을 인준하는 원로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의 총무원장 인준이 확정되면 10월 31일부터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관련 기사 A2 · 3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다운 불교' 만들겠습니다

설정 스님 당선소감문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에게 '총무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종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분열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도 지속적 불교개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저는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겠습니다.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도 여러분들의 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과 도반이 되어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수불스님과 혜총스님, 원학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오신 총무원장 자승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석탄일 아닌 '부처님오신날'

10월 10일 개정안 의결
조계종 환영논평 발표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명칭이 부처님오신날로 변경된다.

정부는 10월 10일 오전 국무회의서 공휴일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불교계 등에서 석가탄신일 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했다"며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는 취지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에 불교계는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기획실장 정문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고 "내년부터 공식적인 부처님오신날로 맞이하게 됐다. 종단은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현 정부에서 실천적 조치로 진행해줬다. 공식 명칭이 된 부처님오신날 의미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도시공원 전통사찰 불사 가능해졌다

10일 관련 시행령 개정

도시공원 내 소규모 전통사찰 불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조계종은 "그동안 개선 및 정비가 필요했던 소규모 전통사찰의 문제가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10월 11일 환영문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1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앞으로 도시공원 지정 당시 연면적이 330㎡ 이내인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조계종은 "개정 전에는 건축물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전통사찰이 오히려 증축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종단은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령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삼보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그리고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원만하게 회향되기까지 신심과 정성을 다하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에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종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교단 안팎으로 매우 위중한 시기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은 협치보다는 분열의 모습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도 지속적 불교개혁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뜻을 거울삼아 저는 신심과 원력을 다해 종단 발전에 쉼 없이 진력할 것입니다. 또한 하심하고 조고각하하며 종도들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겠습니다. 종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공심으로 일로매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종도 여러분들의 발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다운 불교, 존경받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 길에 나설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과 도반이 되어 함께 걷고자 합니다.

선거과정에서 저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거대책위원회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수불스님과 혜총스님, 원학스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년간 안정과 화합을 통해 종단 발전을 이끌어 오신 총무원장 자승스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구석을 살피시며 종단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했고, 대중공사를 통한 종단쇄신에 박차를 가했으며, 승가복지의 뿌리를 내리는 등 불교와 종단 중흥의 결실과 노고는 실로 크다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계율을 같이 지니고, 소견을 같이 나누며,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고, 언제나 남의 뜻을 존중하고 화합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불제자로서 원융무애의 화합으로 새로운 한국불교를 열어 나가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61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당선자 설정 합장